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7. 4. 3.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3.30. 서종수 의원 외 6명
- 나. 회부일자 : 2017.3.31.
- 다. 상정일자 :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7.4.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서종수 의원

가. 제안이유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 정부의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임.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구조가 심각한 불균형 상태인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를 제안함.

3. 검토보고 (김용범 전문위원)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반쪽자리 지방자치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2017년 3월 30일 서종수 의원 외 6명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여 이를 중앙정부 및 국회 그리고 주요 정당에 확고한 뜻을 알리고자 결의한 사항임.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1991년 부활되어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끊임없는 쇄신과 혁신을 거듭하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여 왔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는데 구심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안타까운 현실임.

이에 마포구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헌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권한을 찾고자 하는 의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적법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